

# 연결과 돌봄의 문학사로 다시 보는 1960년대

— 한무숙과 박경리를 중심으로

연 남 경\*

## 요약

4.19혁명을 계기로 기술된 1960년대의 문학사는 비평사·문화사와 더불어 공히 '세대'와 '젠더'의 교체로 특징지어졌다. 본고는 개인과 내면의 '자기세계'에 천착한 청년 남성의 초상이 대표해온 1960년대 문학사를 다시 보기 위해, '계자씨회'를 통해 어머니회의 사회 돌봄 행위성을 증명한 정충량의 논설뿐 아니라, 실상 혁명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세대와 젠더의 교차 지점에서 소외되었던 기성세대 여성 작가의 위치에 주목하였다.

1960년대 초, 전후 초토화된 국가를 재건하고, 4.19혁명으로 새 시대의 가능성을 모색하던 때, 젊은 남성작가들이 개인주의적 주체성 수립의 과제를 놓고, 고독, 불안, 분열을 통한 현실 비판에 주력하였다면, 한무숙의 『대열 속에서』(1961)는 지식인 그룹에서 중견문인의 계몽적 발화인 동시에 여성작가의 복화술의 말하기로서 상호존적 평등에 기반한 사회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박경리의 『푸른 운하』(1960-1961)는 대중 독자들을 향해 탈가축적이며 상호관계적 돌봄 공동체의 서사적 구현과 정치적 상상력을 보여주었다.

이들의 소설은 4.19의 영향에 놓여있으면서도 전후문학의 영향을 수용하고, 세대와 젠더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보편적 돌봄의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1960년대의 시작을 단절의 문학사에서 연결의 문학사로, 불안과 고독의 주체에서 상호 돌봄을 모색하는 공동체의 이야기로 읽어봄으로써 1960년대 문학의 다른 가치를 복원하고 오늘의 문제의식과 공명하는 지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제어: 1960년대, 4.19혁명, 세대, 젠더, 돌봄 윤리, '계자씨회', 대열 속에서, 푸른 운하

목차

1. 들어가며: 혁명, 세대, 젠더와 문학사의 (재)구성
2. 상호의존적 평등의 희구와 책임의 윤리
3. 세대와 젠더를 넘나드는 상호 돌봄의 공동체
4. 나가며: 보편적 가치로서 돌봄 윤리의 선취

## 1. 들어가며: 혁명, 세대, 젠더와 문학사의 (재)구성

한국문학사에서 1960년대는 근대적 주체성이 수립된 시기로 우리 시대 문화와 지성의 직접적 기원으로 여겨진다. 특히, “정치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1960년은 학생들의 해이였지만, 소설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그것은 『광장』의 해이였다”<sup>1)</sup>는 김현의 술회는 1960년대 문학의 기점에 4.19혁명이 문학사적 ‘사건’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저 빛나는 4월이 가져온 새 공화국에 사는 작가의 보람”<sup>2)</sup>을 느끼며 창작된 최인훈의 『광장』을 4.19세대 문학의 시대정신으로 삼고 새로운 사회와 문학의 주체로서 ‘대학생’을 호명하면서 1960년대 문학은 시작되었다.

4.19세대는 스스로를 1960년대 사회와 문학의 주체로서 정체화한다. 1962년 서울대 문리대 소속 『산문시대』 동인들이 전후를 “태초와 같은 어둠”으로 보고<sup>3)</sup>, ‘55년대(전후 신세대)’ 비평가의 성과를 축소하고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세대”로 ‘65년대’ 작가·평론가를 호명하며<sup>4)</sup>, 스스로를

1) 김현, 「사랑의 재확인 『광장』의 개작에 대하여」(1976), 최인훈, 『광장/구운몽-최인훈전집1』, 문학과지성사, 2010, 351면.

2) 최인훈, 「서문」, 『세벽』, 1960.11.(위의 책 20-21면 재인용.)

3) 김승옥, 김현, 최하림, 「선언」, 『산문시대』, 1962, 3면.

1960년대 문학의 주체로서 정립한다. 동시에 김승옥을 향한 ‘감수성의 혁명’이라는 호명<sup>5)</sup>은 한글세대로서 4.19세대에 근대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된다. 전후세대 비평가 유중호의 문학언어에 대한 상찬은 4.19세대 비평가 김주연에 의해 ‘진정성의 주체’로 탈바꿈한다. 전후문학이 “자기가 없는 인습과 관행 속의 인물”을 관념적으로 제시할 뿐이라면 4.19세대의 문학의 감수성은 언어의 차원에서 대상을 인식하는 한 개인의 의식 차원으로 이동하여, 구체적인 사건을 감각하여 자기세계를 갖는 개인, 즉 근대적 주체가 드디어 탄생한다는 것이다.<sup>6)</sup> 이처럼 4.19세대는 김승옥, 박태순, 이청준을 경유하여 스스로를 개성적 인간이자, 인식과 성찰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한다. 진정성을 ‘주체화의 장치로 기능하는 마음의 레짐’으로 정의할 때<sup>7)</sup> 진정성의 주체는 4.19세대에서 그 기원이 찾아질 수 있다.

문제는 인식의 주체에 미달한다고 여겨지는 타자들은 배제된다는 점에서 진정성의 언어는 상처의 언어, 배제의 언어, 전제의 언어로 작용하게 된다<sup>8)</sup>는 것이다. 4.19세대가 스스로를 1960년대 사회와 문학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한 과정은 전후세대 문인과 여성작가를 타자화하고, 남과 나를 구별 짓는 인정투쟁의 결과라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4.19세대가 문단의 주도권을 갖고 전후 신세대에 대항하여 인정투쟁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세대론적 갈등은 여성작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그저 ‘여류’라는 균질적인 평가로 통합되는데, 이처럼 현대문학의 수립 과정에서 세대 간의 갈등을 통한 문단의 주도권은 이후 세대로 이양되면서도 여성은 근대화 of 주체로 여기지 않았던 문단의 오이디푸스적 계보를 확인할 수 있다.<sup>9)</sup> 이와 같이 1960년대 문학사는 세대론과 젠더 규범을 작

4) 김현, 「한국 비평의 가능성」(1969), 『김현문학전집2-현대한국문학의 이론/사회와 윤리』, 문학과지성사, 1991, 104면.

5) 유중호, 「감수성의 혁명」(1966), 『문학과 현실』, 민음사, 1975, 147면.

6) 김주연, 「새시대 문학의 성립-인식의 출발로서 60년대」, 『아세아』 창간호, 1969, 2월호, 255면.

7)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24면.

8) 위의 글, 36면.

동시키며 배제와 단절의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문학사 역시 근대문학의 주체로서 정체화한 4.19세대의 주도로 기술되기 시작했다. 김윤식, 김현의 『한국문학사』는 당시 국학 열풍의 결과물로서<sup>10)</sup> 이들은 근대문학의 기점을 영정조 시대로 올려잡고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 역시 민족의 이동과 재편성에 따른 작가별 성취로 문학사를 기술하고 있다.<sup>11)</sup> 민족문학 수립의 과제를 안고 집필된 『한국문학사』는 이후의 문학사에도 영향을 미쳤다. 가령, 이후에 집필된 권영민의 『한국현대문학사』도 기본적으로 민족문학을 기준으로 삼으며, 196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로 최인훈, 강용준, 김정한, 김승옥, 이청준, 홍성원을 꼽는다.<sup>12)</sup> 이렇게 볼 때, 한국현대문학사 역시 그 기틀을 다지고 세대론적으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4.19세대의 영향 아래 놓여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이러한 민족문학사의 계보에서 누락된 여성문학의 성과를 기록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상경, 『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2002)<sup>13)</sup>, 김미현, 『Herstory: 이브의 역사』<sup>14)</sup>, 김양선, 『한국 근현대 여성문학 장의 형성』(2012)<sup>15)</sup>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여성문학사에서 1960년대는 가부장적 지배 이데올로기의 강화로 인한 침체기나 소강기로 간주되거나,<sup>16)</sup> 리얼리즘을 중시하며 여성해방문학의 입장에서 쓰인 이상경의 문학사에서는 아예 다루어지지 않는다. 이후 후기 근대의 시각에서 기존 문학사

9) 연남경, 「현대비평의 수립, 혹은 통설의 탄생-1959년 백철과 강신재의 논쟁에 주목하며」, 『한국문화연구』36, 한국문화연구원, 2019, 61면.

10) 김건우는 이를 ‘역사에 대한 강박’이라 표현하며, 김현, 김윤식의 『한국문학사』와 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이 1966년 국학계를 강타한 ‘내재적 발전론’의 성과라 본다.(김건우, 「국학, 국문학, 국사학과 세계사적 보편성-1970년대 비평의 한 기원」, 『한국현대문학연구』37, 한국현대문학회, 2012, 530-531면.)

11) 김윤식, 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381-422면.

12)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2, 민음사, 2012(초판1993), 216-238면.

13) 이상경, 『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 소명출판, 2002.

14) 김미현, 『여성문학을 넘어서』, 민음사, 2002, 13-60면.

15) 김양선, 『한국 근현대 여성문학 장의 형성』, 소명출판, 2012.

16) 김미현, 앞의 글, 24면.

서술 시각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문학사 이후의 문학사』<sup>17)</sup>가 문학사 해체와 복수의 문학사를 과제로 제시한 이래로, 2015년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로는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페미니스트 시각으로 읽는 한국현대문학사』<sup>18)</sup>와 같은 선집의 기획과 더불어 기존의 민족주의-지식인-청년-남성 중심의 문학사 해체를 진행 중이다. 그 중 1965년 ‘한국여류문학인회’ 결성을 계기로 각종 여성문학선집과 전집이 출판된 1960년대를 여성문학의 제도화가 이루어진 시기로 중요하게 평가하는 논의가 제출되었고<sup>19)</sup>, 이 외에도 1960년대 여성문학의 성취를 확인하려는 논의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sup>20)</sup> 이들 논의는 대부분 1960년대 여성작가의 대중장편소설을 대상으로 사랑, 연애, 결혼, 가족 서사의 차원에서 찾아지는 불온함과 정치성을 규명하고 있다.

본고 역시 이들 논의의 맥락을 이어 1960년대의 여성문학의 성과를 확인하되, 특히 혁명과 여성문학의 접점에 주목하려 한다. 혁명의 젠더가 남성성을 갖고 있으며 4.19혁명 이후의 문학장도 남성적이라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지식인-청년-남성의 시각에서 누락되었던 혁명과 기성여성작가의 상관성에 관심을 갖는다. 최근 4.19와의 관계에서 여성문학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sup>21)</sup> 이를 돌봄 윤리로 연결 지은 논의

17) 천정환·소영현·임태훈, 『문학사 이후의 문학사』, 푸른역사, 2013.

18) 권보드래 외,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민음사, 2018.

19) 김양선, 앞의 글, 197-206면.

20) 이지영, 「1960년대 대중연애소설의 젠더 패러디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14., 최경희, 「1960년대 소설에 나타난 ‘여성교양’ 담론 연구: 연애·결혼·가족서사를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13., 강지희, 「1960년대 여성장편소설의 증여와 젠더 수행성 연구-강신재와 박경리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19., 윤혜성, 「1960년대 박경리 장편소설의 여성가족로망스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2021., 박구비, 「1960년대 여성가족소설에 나타난 행복의 수행성 연구-강신재, 박경리, 손장순 소설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22., 윤혜성, 「1960년대 여대생 소설에 나타난 사랑의 이중성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22., 최다정, 「1960년대 여성문학의 정동 정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4 등.

21) 강지희, 「4.19 혁명의 재현과 여성 시민권의 창출-박경리와 손장순의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는 아직 없기에, 본고에서는 혁명의 영향으로 사회적으로 돌봄을 수행하고 돌봄 윤리를 보이는 여성작가의 작품에 집중해보려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다음의 글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 1961년, 한 여성 지식인이 4월 혁명 직후에 결성된 자발적 여성단체 ‘계자씨회’의 돌봄 행위를 전하고 있다.

남성 여성은 성별은 다르지만 사회활동에서 구별되지 않는다. 같은 인간으로서 사회에 기여한다.(...) 여기 『계자씨회』라는 조그만 여성단체가 있다. 4.19혁명 때 이(李) 정권에 대항하여 과감히 그 생명을 나라에 바친 어린 학생들을 본 어머니들이 양단치마를 벗어버리고 그들을 간호하고 자식을 잃은 슬픈 부모들을 위로하고 보호해주며 그러므로서 4.19혁명의 벽찬 감동에 호응하려고 모은 어머니들이회가 즉 『계자씨회』이다. 그들에게는 거창한 정통이나 규약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선 행동으로 시작한 이 어머니들의 열의가 과문을 일으켜 수많은 어머니들이 그 회를 찾았었다. 이리해서 중류 이상의 어머니들을 그 희생된 학생들의 가족을 위로하고 부상한 어린 학생들을 구호하고 그 일이 끝나자 그들을 거리에서 노방초(路傍草)의 존재밖에 안 되는 신문팔이 구두담이 그리고 불우한 고학생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들의 힘이 닿는 한 봉사를 애끼지 않았다.(...) 여성은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해서 각성과 자율로서 우리의 국가적 과업의 책임을 받을 말되 자성과 실천으로 임해야 하겠다.<sup>22)</sup>(강조 필자)

이 논설은 “4.19혁명의 벽찬 감동에 호응하려는 어머니들”의 존재를 알리고, “중류 이상”의 어머니들이 자발적으로 어머니회를 결성하여 혁명으

『현대문학의 연구』68, 한국문학연구학회, 2019., 김양선, 「멜로드라마와 4.19 혁명의 서사적 결합」, 『현대소설연구』77, 한국현대소설학회, 2020, 최다정, 「4.19 여성 서사와 상처의 정동-1960년대 여성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86, 한국현대소설학회, 2022 등.

22) 정충량, 「여성계의 사명과 임무-국가건설에 자율적인 참여를 하자」, 『이대학보』 99, 1961.

로 희생된 학생들의 가족을 위로하고 부상당한 학생들을 구호했으며, 이후에도 거리에 방치된 존재인 신문팔이, 구두닦이, 불우한 고학생들을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돌보았음을 기록하고 있다. ‘엄마 품 같은 돌봄 (mothering)’<sup>23)</sup>에서 돌봄윤리가 시작되었듯이,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을 공감하는 것에서 시작된 돌봄은 사회의 취약한 존재들을 돌보는 것으로 나아간다. 취약성이란 삶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구조, 사회구조들에 대해 취약한 것이므로 관계의 한 속성으로 봐야 하며, 우리는 누군가에게 맡겨져 있는 동시에 다른 누군가를 맡고 있는 상황, 즉 상호성을 띠는 관계에 놓여 있다<sup>24)</sup>는 것을 ‘계자씨회’는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4.19가 시민 혁명이라는 점에서 여성이 그린 이상적인 시민상이 ‘계자씨회’였고, 그리하여 자유주의적 개인 이미지에 가려진 상호연관된 사회의 이상, 즉 돌봄 공동체를 복원하여 보여준 중요한 사례에 해당한다. 이 기록으로 혁명 이후의 사회를 지탱하고 취약한 이들을 돌보던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신문 논설위원이자 사회평론가였던 정충량이 ‘여성계의 사명과 임무’라는 청탁을 받고 쓴 위의 글은 국가재건을 위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피력한다. 이 글은 한국사회에서 여성에게 참정권이 부여되어 법적으로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획기적인 전환점<sup>25)</sup>이 되었던 1950년대를 경유하여 쓰였으며, 국가와 사회를 위한 여성들의 기여 방안에 대해 쓰고 있다. 여성들이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신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였듯이,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책임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sup>26)</sup>는 길리건의

23) 에바 F. 키테이, 『돌봄: 사랑의 노동』, 김희강·나상원 옮김, 박영사, 2018, 15면.

24) 주디스 버틀러, 『비폭력의 힘: 윤리학-정치학 잇기』, 김정아 옮김, 문학동네, 2021, 64-71면.

25) 미군정 시기의 인신매매 금지령(1946.5)과 공창폐지령(1947.10)에 이어 1948년 제정 헌법에서 여성 참정권이 부여되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게 되면서 남녀평등의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김복순, 「전후 여성교양의 재배치와 젠더정치」, 『여성문학연구』18, 여성문학학회, 2007, 14-15면.)

26) 캐롤 길리건, 『침묵에서 말하기로』, 이경미 옮김, 푸른숲, 2020, 315면.

지적은 4.19 직후 ‘계자씨회’의 활동에 부합한다. 이러한 계자씨회의 활동은 당시 여성계에서도 주목할 모범 사례로 거론된다.<sup>27)</sup> 헌법에 적시된 이래 활발했던 여성의 사회진출이 위축된 상황에서 ‘4.19를 계기’로 정치색을 띠지 않은 순수한 민간단체의 출현으로서 주목되는데, 이 대답에서 여성의 사회 돌봄 활동이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을 벗어난 공적 영역으로의 진출의 일환으로 여겨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여성에게 모성성을 부여하고 그에 걸맞은 분야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한정한다는 점은 당시 성별 이분법에 근거한 여성 교양 담론과 맞물리며 여성 해방(사회 진출 장려)과 여성 통제(젠더 역할 제한) 사이에 놓여 있었던<sup>28)</sup> 여성 지식인의 딜레마를 보여주지만, 돌봄 윤리 자체가 일방적이고 이타적인 ‘상실’이 아니라 관계적이고 자기 보존적인 ‘선택’에 토대를 둔다는 측면에<sup>29)</sup> 주목한다면 ‘계자씨회’의 활동은 ‘자기 돌봄’의 윤리에 해당한다. 어머니들은 여성이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해야 했던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갈 사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가적 과업의 반을 맡기 위해” 돌봄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은 가정으로!’는 4월 혁명 직후 터져나온 외침 중 하나였고, ‘젊은 사자들’로 혁명의 주체가 남성 대학생으로 표상되었듯이, 문화사적 차원에서 4.19는 세대-젠더의 교체가 이루어진 사건이었으며, 이는 1950년대의 여성(성)의 약진에 대한 남성(성)의 불안과 인정투쟁이 작동된 결과임이 보고되었다.<sup>30)</sup> 4월 혁명과 관련된 여성의 동향은 서울대 여학생을

27) 1960년을 결산하는 이태영(여류변호사)과 이례행(보건사회부 부녀국장)의 대답에서도 ‘계자씨회’가 4.19를 계기로 한 여성의 사회참여의 모범 사례로서 언급되고 있다. 이 대답에서는 해방 이래 민주헌법으로 보장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다가 현재 후퇴일로에 있는 상황을 여성의 사회진출을 꺼리는 한국사회의 분위기와 ‘대한부인회’와 같은 정치색 짙은 어용단체의 활동 때문이라 보고,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발족하여 사회 돌봄을 수행하는 ‘계자씨회’에 주목한다.(대담 「61년에 지표를 둔 庚子문화」, 『조선일보』, 1960.12.21.)

28) 연남경, 「1950년대 여성 지식인 담론 연구-『이대학보』의 문학담론을 중심으로」, 『구보학보』24, 구보학회, 2020, 346-348면.

29) 김미현, 「정의에서 돌봄으로, 돌봄에서 자기 돌봄으로」, 『그림자의 빛』, 민음사, 2020, 151면.



중심으로 전개된 ‘신생활운동’이 대표하는데, 이는 실상 국산품애용 운동이었고, 결국 ‘자유부인’과 ‘아프레겔’이 4월 혁명을 거치며 1965년 『여원』이 특집으로 마련한 ‘신사임당’으로 변모되었다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세대 교체 서사로 봉합되어 보이지 않았던 사각지대에 어머니들의 사회활동인 ‘계자씨회’의 존재가 있었던 것이다. 이는 1950년대의 부정적 여성표상이었던 ‘자유부인’이나 ‘계부인’, ‘유한마담’과 다르고, 1960년대의 “사회와 격리된 규방에 파묻혀 있으면서도 부덕과 학문을 쌓은”<sup>31)</sup> 보수적 여성상과도 확연히 구별된다. 이전 시기의 참정권 획득과 제도적 안정이 여성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성장시켰고, 전쟁 이후 시장과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여 경제력을 획득했던 여성들의 경험과 저력이 토대가 된 상태에서 발발한 혁명은 중상층 어머니들의 시민의식에도 각성을 불러일으켜 스스로 여성주의적 사회운동을 가능하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시점에서 이 글을 다시 읽었을 때 중요한 것은 ‘계자씨회’의 존재와 활동이 어머니회에서 시작되었으나 사회를 구성하는 보편 윤리로 나아가야 할 단초를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캐롤 길리건<sup>32)</sup>의 말대로, “여성의 ‘다른 목소리’에는 돌봄 윤리의 진실이 있고, 관계와 책임의 연대가 있”<sup>33)</sup>기

30) 권보드래·천정환, 『1960년을 묻다-박정희 시대의 문화정치와 지성』, 천년의상상, 2012, 465-489면.

31) 위의 글, 505면.

32) 길리건은 남성 중심의 심리학과 도덕 이론이 표준이 되어 인간 경험을 대표해온 것에 반발하고, 도덕관의 성차를 관찰한 결과 돌봄 윤리를 발견한다. 요컨대 남성 심리는 세계에서의 분리를 통한 자아 정체성 획득에 주안점이 주어지므로 독립심과 성공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면, 여성 심리는 타자와의 애착에 기반한 친밀한 관계에서 출발하므로 상호 연결망 구축과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 전자는 위계 구조적 관점에서 꼭대기에 혼자 있고자 하는 열망과 타인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볼 수 있고, 후자는 그물 구조적 관점에서 관계의 중심에 있고자 하는 소망과 가장자리로 떠밀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볼 수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정의 윤리는 권력 차이와 무관한 공정한 대우를 요청하고, 후자에 해당하는 돌봄 윤리는 누구도 홀로 외로이 남겨지거나 상처 입지 않으리라는 비전을 제시한다.(캐롤 길리건(2020), 위의 글, 177-178면.)

때문이다. 남성성이 표준이었던 근대 사회에서 부족한 윤리로서 “여성의 경험에서 출발한 돌봄 윤리가 인류의 삶에 보탬이 될 것이기에, 여성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로 여길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돌봄 윤리는 여성에게만 부과된 ‘여성’ 윤리가 아니라 여성적 가치에서 비롯된 ‘여성주의’ 윤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길리건의 용어를 빌려 말하자면, 기존의 1960년대 문학사가 상호의존성을 부정한 남성성의 망상적 자족성을 보여주는 ‘사냥꾼 가설(man as a hunter)’에 의해 기술된 것이라면, 여성 문학의 돌봄 윤리를 통해 다시 모색하는 1960년대 문학사는 지위진 ‘대행부모 가설(alloparent, 부모 이외의 양육자)’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분리와 독립을 강조한 개체주의 대신 취약성에 기반한 그물 구조적 관점의 공동체 만들기로 시각을 이동해보려는 것이다.<sup>34)</sup>

이 연구는 기존 문학사가 놓여있는 타자화와 단절의 방식에서 벗어나 서로 돌보며 관계 맺는 연결의 방식으로 1960년대의 시각을 다르게 읽어 보려 한다. 실상 4.19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청년 남성의 대표성에 가려 세대와 젠더의 교차 지점에서 소외되었던 기성세대 여성작가의 소설에서 빚어진 ‘다른 목소리’를 들어보려 한다. 4.19 현장을 다룬 한무숙의 『대열 속에서』(1961)는 1960년대를 맞이한 기성세대 여성작가가 가족, 사회, 계급의 연결을 보여주며, 순수문학과 대중문학을 연결한 박경리의 『푸른 운하』(1960-1961)는 4.19를 계기로 하여 가부장제를 넘어선 보편적 돌봄의 필요성과 상호관계적 공동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서사로 읽어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이 자신의 서로 다른 위치에서 여성주의 돌봄 윤리를 보편 윤리로 정립하고자 어떻게 작품으로 말을 걸고 있었는지에 집중해

33) 위의 글, 404-405면.

34) 길리건은 인류가 ‘성의 계약’에 기반한 일부일처제나 이성에 모델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대행부모 역할이나 집단양육 덕분에 생존할 수 있었음을 근거로 기존 문명이 채택한 ‘사냥꾼 가설’ 대신 ‘대행부모 가설’로 시각을 이동할 것을 주장한다.(캐롤 길리건, 『담대한 목소리』, 김문주 옮김, 생각정원, 95-97면 참조.)

보려 한다.

## 2. 상호의존적 평등의 희구와 책임의 윤리

한무숙의 「대열 속에서」(1961)는 『사상계』 100호 기념 (문학)증간호에 실린 소설이다.<sup>35)</sup> 이 작품은 내용 분석에 앞서 발표된 지면과 시기 차원의 맥락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1960년 4.19혁명을 전후해서 『사상계』를 필두로 한 지식인 잡지가 혁명의 중요한 내적 계기를 마련해주었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사상계의 전성시대’가 도래한다.<sup>36)</sup> 문학을 통한 대중의 계몽을 취지로 ‘사상’과 ‘이념’을 핵심으로 문학의 혁신을 건인<sup>37)</sup>했던 『사상계』는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문학을 주로 실었다. 100호를 기념해서 문학증간호를 간행했다는 사실은 문학을 중시한 잡지의 전략을 방증한다. 문학증간호에는 80편의 시, 소설, 수필, 비평이 실렸는데, 이들은 “신문학 반세기”를 맞아 “민족문학의 수립을 위한 슬기롭고 양심적인 문학에의 헌신자”로 호명되었으며<sup>38)</sup> “미래의 우리문학을 위해 세계의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창작 7인집’으로 묶인 작가들이 김동리, 김이석, 안수길, 오영수, 장용학, 황순원, 한무숙이라는 점에서 중견문인의 대표격으로 불려나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39)</sup>

특히 내면성과 외면성의 균형을 맞춘<sup>40)</sup> 작품 세계로 문단의 인정을 받

35) 한무숙, 「대열 속에서」, 『사상계』101, 1961.11, 96-119면.

36) 『사상계』는 1950년대에는 ‘지식인 사회의 재건’에 기여했고, 1960년대에 들어서는 한국의 사상적이고 정치·사회·문화적인 전환을 선도하는 중심 매체로 기능했다.(임유경, 「지식인과 잡지 문화」, 오재연 외, 『한국현대생활문화사-1960년대』, 창비, 2016, 89면.)

37) 김건우, 『사상계와 1950년대 문학』, 소명출판, 2003, 90-97면.

38) 권두언, 「백호기념특별증간호를 내면서」, 위의 책, 30-31면.

39) 한무숙은 1943년 『신시대』에 장편 『등불 드는 여인』이 당선되어 등단하였으나, 1948년 『국제신문』에 장편 『역사는 흐른다』가 당선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문단 활동을 시작하였다.

40) 한무숙은 한국전쟁과 4.19를 당대에 반영하는 등 현실 논리를 따르면서 주체의 확립을 보

있던 한무숙은 그중 유일한 여성작가였다. 또한 인물들이 삶의 세목 속에서 여자의 역사나 남자의 역사를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기반하며, 그런 의미에서 한무숙의 인물들은 더욱 젠더적으로 나타나기에,<sup>41)</sup> 「대열 속에서」에서는 혁명의 대열에 세울 수 있는 인물로 남성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성 유대만이 민족을 표상하는 이미지로 형상화되었음을 문제시하면서도 남성작가와 비평가가 독점하던 1960년대 문학사에서 여성작가의 소설을 4.19혁명을 재현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sup>42)</sup>는 평가도 유의미하다. 이처럼 1960년대 벽두에, 『사상계』 문학증간 호에, 중견여성 작가가, 남성 인물을 선택하여, 4.19혁명을 직접 다루었다는 점에서 「대열 속에서」는 문제적인 텍스트이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들은 4.19세대의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자기 내면으로 천착하는 고독한 남성 주체와 다르다는 점이 주목을 요한다.

「대열 속에서」<sup>43)</sup>는 ‘피의 화요일’, 학교 교문을 빠져나와 광화문 네거리를 뺨긋히 메운 대학생들의 ‘대열 속에서’ 시작된다. “부정선거 고쳐 해라!”, “마산사건 책임져라!”,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라!”를 부르짖으며 스크럼을 짜고 중앙청을 향해가는 “학도들은 이제 분노에 불타는 사자들”(33)로 명명된다.<sup>44)</sup> 그런데 소설은 이런 대열 속에서 소외감을 겪는 명서에

---

여주였으며, 한무숙의 소설은 일상에서의 감정을 세밀하게 포착했다는 점에서 내면성을 얻고, 사회 현실을 배경으로 한 감정으로 보편적 윤리에까지 나아갔다는 점에서 외면성을 획득하고 있다.(권혜린, 「한무숙 소설의 윤리성 연구」, 『겨레어문학』52, 겨레어문학회, 2014, 26-27면.)

41) 장지윤, 「역사화된 삶과 젠더적 삶: 환상의 파열 지점으로서의 젠더-한무숙 소설을 읽는 하나의 관점」, 『여성문학연구』49, 2020, 96면.

42) 최다정, 「1960년대 여성문학의 정동 정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4, 34-36면.

43) 본고의 소설 인용은 한무숙, 「대열 속에서」(『한무숙 작품집』, 김진희 엮음, 지만지, 2010, 27-73면)에 따름.

44) 대학생이 나선 「피의 화요일」은 혁명의 마지막 국면에 해당했으며, 이날이 4.19 혁명을 대학생의 영광으로 독점하는 계기를 부여하며, 부정적인 대학생의 사회적 인식을 한 번에 뒤바꾸고 대학생이라는 사회·문화적 주체를 탄생시켰다는 점에 의하면, 4.19를 지식인 혁명으로 명

주목하며, 현실과 명서의 의식 사이를 길항한다. “이 생명의 대열 속에서 이질인 자기를 발라낸 것은, 창수의 그 우렁찬 굵은 음성이었”(40)던 것으로, 명서의 소외감은 창수에 대한 죄의식에서 비롯된다.

4.19의 대열 속에서 숨 가쁘게들 움직이고 있는 발들은 6.25의 피란길에서의 어지러운 발걸음으로 이어진다. 당시 열한 살이었던 명서는 차 한 귀퉁이에 앉아 그날의 일을 목격한다. 장관집 가족들이 탄 차에 운전수 신 군은 아들을 태우지 못한다. 우는 어린 창수를 뒤로 하고 남은 가족과 헤어진 채 운전수는 장관 가족만을 모시고 피란길을 떠난 것이다. 타자와의 사회적 관계를 부정하고 이기적 개인주의와 결합한 자족적 주체에 대한 환상은 ‘자기’ 외의 존재들, 즉 ‘나’와 이질적인 타자의 생명은 보호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배제의 폭력으로 이어진다.<sup>45)</sup> 명서 가족은 운전수가 없었다면 피란을 가지도 못했을 터이면서도 ‘나’와 혈연적으로 동질적인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창수는 차에 태워주지 않는다. 운전수의 가족은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생명이 된 것이다. 다시 돌아온 서울에서 창수 어머니는 죽고 큰 딸은 북으로 가고, 작은 딸은 수복 후 부역자로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도, 운전수 신 군은 부역자 가족임에도 자신을 거두어 준 주인에 감사하며 창수만을 키우며 살아간다. 이후 명서는 고관의 외아들로서 수재로 자라나고, 창수와 같은 집에 살면서도 두려움에 가까운 압박감을 느끼며 의식적으로 창수를 피한다. 명서에게 어린 시절 6.25 피란에서 시작된 기억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백성을 죽음의 길로 몰고 있다는 집권자의 핏줄기인 까닭에”(59) “불을 질러놓고 그 불을 끄려가는 사람 틈에 몰래 끼어가는 죄의식”(60)으로 확장된다. 그러다 결국 대열 속에서 “국민에게 사죄하라!”를 외치는 창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명서는 그날의 피란길에서부터 십 년이 넘도록 줄곧 외쳐왔을 창수의 목소리

명한 『사상계』의 입장과 한무숙의 시각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권보드레·천정환, 앞의 글, 37-39면 참조.)

45) 주디스 버틀러, 앞의 글, 22-26면.

를 듣지 않고 외면했던 자신의 과오를 깨닫는다.

“창수!”

명서는 저도 모르게 외치며 벌떡 일어났다.

전 세계가 창수의 이름으로 차가는 것 같았다. 이때,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해 있는 것은 창수와 자기밖에 없었다.

그는 한달음으로 바리케이드 앞으로 뛰어나갔다. 그리고 피흘리는 창수를 끌어 일으켜 어깨에 걸머졌다.

따, 따, 따, 따

경관의 총이 다시 불을 뿜었다. 뜨거운 것이 목에 와 꽂혔다. 날아 온 총이 뒷덜미에 명중한 것이다.

명서는 창수를 걸머면 채 함께 보도 길 위에 쓰러졌다.(72)(강조 필자)

그렇기에 창수가 경찰의 총에 맞아 쓰러지는 순간, 세계는 명서와 창수 두 사람만의 관계로 가득 찬다. 명서의 세계는 창수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며 창수가 죽자 끝날 만큼 상호의존적 관계 지향성이 뚜렷하게 전경화된다. 사회적 평등이란 추상적인 이념이 아니라 모두가 의존하며 의존되고 있다는 구체적 조건으로부터 모색되는 가치에 해당<sup>46)</sup>하기 때문이다. 명서는 창수에게로 달려가고 명서의 머리는 총에 맞아 창수의 가슴 위로 떨어진다. 포개어진 “두 젊은이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는 마치 한 사람의 몸에서 흘러나온 것이나처럼 한데 엉켜 흐르고 있었다”(73)로 끝맺는 소설은 상호 얽힘의 관계 지향적 존재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청년 남성 주인공이 구별 짓기를 통한 주체성 확보를 포기한다는 것, 자아에 매몰되는 나르시시즘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특이하다. 1960년대 김승옥과 이청준의 소설에서 자주 보이는 여성 타자화를 통해 주체성을 확보하는 방식과 달리 오히려 명서의 고뇌는 타인의 고통을 책임지지 못했다는 것에서 비

---

46) 위의 글, 30면.

롯되었고, 결국 창수와의 관계를 위해 죽음을 맞이한다는 점에서 돌봄과 책임의 윤리가 발견된다.

특히 이 소설에서 중요한 상징인 ‘피’가 혈연에 기반한 가족주의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 주목을 요한다. 명서에게 ‘피’는 혈연관계였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 대열 속 젊은이들의 ‘커다란 질서’로 이양되고, 그 안의 창수에게로 이어진다. 명서는 고위급 자체로서 타인과의 구별을 통해 독립과 안전을 추구할 수 있었을 테지만, 그 대신 타인과의 연결을 통해 상호적 관계 맺기를 중시한다. 창수가 외친 “국민에게 사죄하라!”의 요구에 대하여 오랜 계급 간 위계 관계와 그로 인한 착취의 누적에 명서가 피로서 응답하고자 한 것이다. 유년 시절 창수의 울음소리를 “보잘것없는 ‘남’의 일”(49)로 취급하던 명서 가족의 ‘위계 구조적 관점’에서 비롯된 배제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후의 청년 명서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취득한 기득권을 버리고 이기적 개인주의를 벗어나 창수와의 관계에 헌신하는 ‘그물 구조적 관점’으로의 전환을 보여준다. 두 청년의 하나 된 피는 모두가 의존하며 의존되고 있다는 구체적 조건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평등이며, 이러한 평등주의적 상상계가 펼쳐짐으로써만 4.19 이후 새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뜻한다.<sup>47)</sup> 그리고 계급과 민족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관계와 명서 개인의 구체적인 조건에서 작동된다. 이렇게 명서는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죄책감을 창수의 외침에 죽음으로 응답함으로써 개인주의와 결별한다.<sup>48)</sup>

47) 두 청년의 피가 하나로 합쳐지는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표면적으로는’ ‘여성(성)을 타자의 형상으로만 동원하는 남성 유대만이 ‘민족을 표상하는 이미지로 형상화’(최다정, 위의 글, 35면.)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48) 버틀러는 ‘리버럴 개인주의’를 일종의 거울단계의 유아적 자만으로 본다. 영원한 성인 남성성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모종의 의존성을 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상화된 개인주의는 사회관계들에 둘러싸인 신체에 상응하는 조건인 취약성이라는 조건을 담아내지 못한다. 이에 비폭력 실천을 위해 버틀러는 ‘자기’를 관계적인 것으로 보고, 사회적 유대 관계를 생명체의 구성요소로 재검토하기 위해 개인주의 비판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주디스 버틀러, 앞의 글, 28-29, 61, 249면 참조.)

명서가 생명의 가치를 산정하는 차별적 방식에 반대함으로써 소설의 ‘대열 속’은 애도 가치의 급진적 평등을 요구하는 ‘애도 시위’<sup>49)</sup>의 공간으로 변모한다. 애도 가치가 계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분배되는 방식에 반대하고<sup>50)</sup>,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넘어 사회제도, 정치적 삶의 구조를 다시 생각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볼 때, 「대열 속에서」가 보여준 혁명 정신과 그것을 체현한 인물 형상은 『사상계』가 자주 호명했던 김성한과 선우휘의 계몽사상을 앞장서서 보여주는 긍정적이면서도 건설적 인물과도 다르고, 4.19세대의 대표 초상인 최인훈의 고독한 주제, 김승옥의 불안한 주제와도 다르다. 결말 구조가 다소 작위적이기는 하지만, 남성의 가면을 쓰고, 다수의 남성 독자들에게 여성주의 윤리를 전파하려 했던 중견 여성작가의 노련함이 돋보인다는 점에서, 「대열 속에서」는 돌봄 윤리가 갖는 보편성이 당시의 젠더 규범에서 여성적인 것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잘 고안된 작품이다.

이와 같이 4.19혁명을 계기로 중견 여성작가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사회 비전이 담긴 서사는 부정적 기득권 세력과의 절연과 상호의존적 관계에 기반해 모두가 함께하는 평등한 세상이었다. 이것을 청년 세대에 요청하되 상호관계적 자아 형성과 돌봄의 공동체 형성 책임이 여성에게만 국한된 역할이 아님을 역설한다. 젠더 규범이 확실했고 한편 그와 공존하며 글을 써야 했던 정황이 보이지만, 여성작가 한무숙은 남성의 가면을 쓰고 작품에서 복화술로 말한다. 그리하여 당시 문학장의 젠더 규범에서 비롯된 편견과 달리 여성작가도 사회와 정치를 다루는 역량이 있고 그렇기에 산문정신과 현실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sup>51)</sup>, 좀더 포용적이

49) 위의 글, 98면.

50) 위의 글, 98-103면 참조.

51) 당시 박경리와 한무숙의 소설에 대하여 “산문정신은 대하처럼 흐르는 것”이어야 하는데, “도량물처럼 흘러가는 여성적이며 장난감 같은 모형예술”이라 보는 등 여성작가의 작품을 ‘여류’로 매도하고 산문정신의 실패, 현실의식의 부족으로 규정짓는 비평계의 시각이 공고했다.(이어령, 「1957년의 작가들」, 『사상계』, 1958.1.)



고 성숙한 관점에서 상호의존적 관계에 기반한 공동체의 이상을 펼쳐보인다. 이와 같이 「대열 속에서」는 『사상계』를 주로 읽었던 지식인 독자에게 여성주의 윤리를 보편 윤리로 전파하려 했던 중견 여성작가의 ‘다른 목소리가 담겨 있는 작품이다.

### 3. 세대와 젠더를 넘나드는 상호 돌봄의 공동체

박경리는 여성작가로서는 드물게 등단하고 바로 주류 문단의 인정을 받았으며<sup>52)</sup>, 『여원』으로 대표되는 여성문학장의 태도도 호의적이었다.<sup>53)</sup> 또한 기존 문학사에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여성)작가이다. 『한국현대문학사』에서는 「불신시대」(1957)를 “사회 현실의 훼손된 국민들을 예리하게 파헤치며 강렬한 고발의식<sup>54)</sup>을 보여준 작품으로서 적극적으로 평가하며, 전후문학을 대표하는 키워드로 ‘불신시대’<sup>55)</sup>를 채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토지』라는 역사소설의 작가로서 각인되기 전, 다수의 장편소설을 창작했던 1960년대의 성과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대개 등단 당시 문학성을 인정받았던 단편소설과 달리 1960년대의 박경리의 소설은 대중소설의 범주에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 시기 박경리의 문학 창작 변화에 대해 김양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박경리는 첫 장편 『애가』(1958) 발표 이후, 60년대에 장편대중소설을 집중적으로 발표하는

52) 박경리는 「불신시대」(1957), 「영주와 고양이」(1957)로 현대문학사의 신인문학상을 수상한다.

53) 『여원』의 좌담회 「여류예술계의 전망」(1956.1)에서 “사변 전에 강신제가 나온 후 6.7년간 소설가가 안 나왔다가 박경리가 나왔다”는 점에 이례적으로 주목하고 있다거나, 「문학을 하며 산다는 것」(1958.4)에서 한무숙과 박경리 두 ‘여류’ 수상 작가의 대답을 실고 있다는 사례가 이를 방증한다.(김양선, 『한국 근·현대 여성문학장의 형성-문학제도과 양식』, 소명출판, 2012, 192-193면.)

54) 권영민, 앞의 글, 126-127면.

55) 위의 글, 188면.

데, 이런 경향은 50년대 후반, 60년대 문학 장과 미디어 장의 연재소설, 대중소설의 급증이라는 흐름과 맞물리고, 개인적으로는 생계를 위해 작품을 써야 했던 작가의 사정과의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sup>56)</sup>

혁명이 일어난 1960년만 하더라도 박경리는 다수의 장편소설을 여러 지면에 연재 중이었다. 『은하』(『대구일보』, 1960.4.1.-8.10.), 『내 마음은 호수』(『조선일보』, 1960.4.6.-12.31.), 『성녀와 마녀』(『여원』, 1960.4-1961.3), 『푸른 운하』(『국제신보』, 1960.9.6.-1961.4.19.)가 서울과 지역의 신문, 여성지에 동시다발적으로 연재되고 있었다. 그런데 동일한 시기에 연재된 장편소설이라 하더라도 작품마다 다양한 독해가 요청되며<sup>57)</sup>, 이중 4.19의 영향 관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작품으로는 『푸른 운하』와 『노을 진 들녘』이 해당하는데<sup>58)</sup>, 그중에서도 『노을 진 들녘』은 박경리 소설 가운데 4.19혁명이 가장 구체적으로 재현된다<sup>59)</sup>는 차원에서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왔다. 여기에서 1960년대 박경리 소설세계의 변화의 원동력을

56) 김양선, 「박경리 초기 장편소설의 여성/문학사적 위치」, 『여성문학연구』50,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a, 179면.

57) 가령, 『성녀와 마녀』는 나쁜 피를 이어받은 요부형의 여성과 제도권 내의 성녀형 여성의 교란을 통해 여성 이분법의 문제를 다루었고, 『내 마음의 호수』는 한국전쟁 직후를 배경으로 기성세대 여성인 유혜련의 사랑을 주로 다루는 서사이자, 죽음 이후 청년세대에 희망을 거는 특징을 보이며, 『은하』의 인회는 계모의 협잡으로 시집을 가는 비운의 여성인물로 가부장제에 갇힌 서사에 해당한다면, 『푸른 운하』의 은경은 계모가 강요하는 결혼을 피해 서울로 상경하는 당찬 청년여성이며, 기성세대 여성인 허찬희가 젊은 세대와 맺는 관계가 주를 이루며, 4.19를 계기로 돌봄의 사회적 확장을 꾀한다는 점에서 모두 달리 해석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58) 김양선은 『푸른 운하』와 『노을 진 들녘』을 중심으로 멜로드라마와 4.19 혁명이 절합하며, 여성작가의 장편대중소설이 혁명이라는 사회역사적 장면을 다른 방식으로 그릴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대중소설의 정치성을 재고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충분하지만,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대립적 구도와 멜로드라마 문법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와는 시각을 달리한다.(김양선, 「멜로드라마와 4.19 혁명의 서사적 절합」, 『현대소설연구』77, 한국현대소설학회, 2020b.)

59) 강지희, 「4.19 혁명의 재현과 여성 시민권의 창출-박경리와 손장순의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68, 한국문학연구학회, 2019a, 11면.

4.19혁명으로 보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sup>60)</sup> 본고에서는 『푸른 운하』를 중심으로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sup>61)</sup> 『푸른 운하』<sup>62)</sup> 역시 지금까지는 다른 소설과 마찬가지로 주로 청년 여성을 중심으로 읽혀 왔으나<sup>63)</sup>, 그뿐 아니라 중년 여성과 청년 남성의 역할 또한 중요하며, 인물 간 상호관계적 맥락을 살피고 특히 4.19를 계기로 모색된 돌봄의 가치에 집중하기 적절한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소설은 송은경이 고향 마산에서 서울로 허찬회를 찾아오면서 시작된다. 찬회는 은경의 어머니 영숙의 여고시절 사랑동생이었고, 자식이 없고 유복한 찬회는 영숙이 죽은 후에도 아이들을 돌봐왔다. 은경은 계모가 주선한 정략결혼을 피해 아예 찬회의 집으로 살러 온 것인데, 거기에서 찬회의 남편인 김상국 국회의원의 비서 이치윤을 만나 사랑에 빠지면서 가출한 이치윤의 아내 경란과 삼각관계에 놓인다. 한편 은경은 부유한 사업가 집안의 장남 김남식의 애정 공세에 휘말리며 또 다른 삼각관계가 펼쳐지는가 하면, 고향에서 알던 박지태의 집요한 구애에도 시달린다. 이렇게 볼 때, 『푸른 운하』는 표면적으로는 송은경이 어떤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치윤과의 사랑을 이루는 로맨스 소설로 읽힐 수 있다. 한편, 그 이면에는 출판사를 차려 사회모순에 정면 대결을 시도한 청년들의 모습이 겹쳐진다. 김남식은 아버지 김 사장한테 자금을 조달하여 ‘현대출판사’를 열고, 친구인 이치윤, 송은경 등의 도움으로 종합지 『청조』를 창간한다. 『청조』가 자유당 H 의원의 비리를 폭로한 것을 계기로 H 의원이 뒷배를 봐주어 큰 사업을 굴리던 김 사장은 곤란해진다. 특히 잡지 발간으로 대표

60) 강지희, 「1960년대 여성장편소설의 증여와 젠더 수행성 연구-강신재와 박경리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논문, 2019b, 56면.

61) 『노을 진 들녘』과 4.19의 영향 관계를 밝힌 논의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 강지희 (2019), 앞의 글, 김양선(2020b), 앞의 글, 최다정, 「4.19 여성 서사와 상처의 정동-1960년대 여성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86, 한국현대소설학회, 2022.

62) 이후 소설 인용은 박경리, 『푸른 운하』(마로니에북스, 2014)에 따름.

63) 윤혜정, 「1960년대 박경리 장편소설의 여성가족로망스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2021.

되는 이들 세 젊은이의 운명은 자유당과 영합한 구세대와의 대결로 치닫는데, 이러한 설정으로 지식인 잡지와 혁명의 관련성을 증명하기도 한다. 지금부터는 4.19와 관련한 인물의 변화 및 관계의 변화 양상에 좀 더 집중해보기로 한다.

그러나 마산에서는 다시 맨주먹으로 학생과 시민들이 봉기하였다. 불사조처럼 일어났던 것이다. 학살과 고문, 위조 공산당, 갖가지 잔인한 수법도 그들을 막지는 못하였다. 김주열 군의 시체는 실로 위대한 민주주의 제단의 제물이 되었던 것이다.(461)(강조 필자)

『푸른 운하』의 마지막 장은 4월 혁명의 소식을 전하면서 시작된다. 실제로 김주열(당시 마산상업고등학교 학생, 17세)의 시신은 혁명의 열기를 이끈 중대한 계기였다. 눈에서 목으로 탄환이 박힌 채 바다에 떠 있는 김주열의 시신 사진은 이승만 정권, 그 부패한 권력이 자행한 폭력이 인간의 삶 자체를 어떻게 무참하게 파괴해버렸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미지였다.<sup>64)</sup> 버틀러에 의하면, 삶 자체와 더불어 출현하는 인간 공통의 ‘취약성(vulnerability)’이 일차적인 취약성의 조건이라면, 인간의 삶은 타자의 접촉에 양도된다는 조건에 처해 있다. 나아가 구체화된 사회 관계에서 삶이 다르게 지지되고 유지된다는 차원의 ‘위태로운 삶(precariety)’이 출현한다.<sup>65)</sup> 철저히 보호받고 존엄성이 지켜지는 삶이 있는 반면, 위태로운 삶은 사회에서 버려져 지원을 받을 수도 ‘애도할 만한’ 자격도 얻지 못하

64) 당시 신문에는 김주열의 시신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바다에 버려진 사진과 인양 후에 태극기를 덮어놓은 부패한 시신의 사진 등이 게재되었고, 이는 이승만 정권에 대한 대중들의 폭발 직전에 이른 분노를 더 이상 제어할 수 없는 혁명의 열기로 이끈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권명아, 「죽음과의 입맞춤 혁명과 간통, 사랑의 소유권」, 우찬제·이광호 엮음, 『4.19와 모더니티』, 문학과지성사, 2010, 223면.)

65) 주디스 버틀러, 『불확실한 삶: 애도와 폭력의 권력들』, 양효실 옮김, 경성대학교출판부, 2008, 61-62면.

는 것에서 비롯되는 정치적 개념이다.<sup>66)</sup> 최루탄이 박힌 채 바다로 버려진 김주열의 시체는 위태로운 삶의 표상이 되어 그것이 출현하는 사회구조를 폭로한다. “김주열 군의 시체는 실로 위대한 민주주의 제단의 제물이 되었던 것”이라는 소설의 언급은 위태로운 삶의 표상인 김주열의 시신이 모든 시민의 애도의 대상으로 전도되는 양상을 통해 거대한 ‘애도 시위’가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푸른 운하』는 이와 같이 4월 혁명이 시작된 원인으로서 김주열의 시신이 갖는 정치성을 폭로하고 있다.<sup>67)</sup>

또한 소설에서는 4.19를 전후해 두 남성의 죽음이 그려지고 있는데, 하나는 자유당에 들어간 뒤 갑작스럽게 죽은 김상국이고 다른 하나는 시위대에 휩쓸려 죽은 박지태다. 김상국 의원이 자유당에 입당하자 이치윤이 비서직을 그만두고, 이후 김상국 의원이 뇌일혈로 급사한다는 설정이나, 은경을 겁탈하려다 포기하고 선거날 밤 절망감에 휩싸여 거리로 나갔다 부질없이 죽은 박지태의 경우는 의미심장하다. 결국 4.19를 계기로 두 남성 인물이 맞은 죽음은 기성세대 권력층과 절연하는 한편 여성을 소유의 대상으로 여기는 여성 혐오도 척결하려는 소설의 강력한 의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치윤의 변화는 김상국과 박지태의 경우와 비교해볼 때 그 의미가 더욱 두드러진다.

이치윤은 김상국 의원 비서직 사퇴, 『청조』 잡지의 발간, 자유당 집권자들을 향한 반발심, 3.15 부정선거로 인한 혼란한 상황에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다. 경란과 H 의원의 협잡으로 정치깡패에 붙들렸다가 남식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구출된 치윤은 은경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내적 방향을 고백한다.

66) 정혜옥, 「집합적 주체와 몸들의 연대: 주디스 버틀러와 더불어 집회를 생각하기」, 『비평과 이론』23(1), 한국비평이론학회, 2018, 13면.

67) 박경리는 1960년 4월 『조선일보』에 「어린 비둘기를 더 이상 욕보이지 말라」는 호소문을 써서 4.19혁명에 희생된 학생들의 죽음을 애도한 바 있다.(강지희(2019b), 앞의 글, 56면.)

“내가 가난한 농토에서 나가지고 기형적인 교육을 받고 내 과거와 동 떨어진 현실에 있는 때문이 아닐까?(...) 실상 내가 서 있어야 할 위치는 현재의 이런 것이 아니었을 거요. 나는 학생 시절에 고학을 했었소. 주로 가정교사였었죠. 입신양명의 거창한 포부를 가지고 어려운 여러 가지 고비를 넘겼는지,(...) 일에 충실하고 공부에 열중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김 의원을 우연히 알게 되어 줄곧 도움을 받고, 또한 그분의 비서 노릇을 했었지만 지금에서 나는 아무 지표 없이 걸어온 내 발자취를 돌아다보오. 나는 남식을 잘못 인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 결혼상대자도 잘못 인식하였고 나아가서 현실을 온통 잘못 인식하였소.”(404-405)

4.19를 계기로 이치윤은 방향을 그만두고 자신의 지표를 찾는다. 그것은 자신의 출생지였던 시골로 내려가 거기에서 살 만한 삶을 모색하는 일이다. 그를 위해 치윤은 출판사를 그만두기 전에 사진기자와 취재 여행을 다녀온다. 서울역을 떠난 기차에서 이들이 나누는 대화는 다음과 같다.

차창 밖에는 들이 있고 다 기울어진 농가가 산재해 있다.

“마치 천국과 지옥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정씨의 말에 생각에 잠겨 있던 이치윤이 슬며시 고개를 든다.

“아, 저것 좀 보세요. 서울의 명동과 비교해보면 말입니다.”

정씨는 빵을 꿀떡 삼키며 쓰러져가는 농가를 가리켰다.

지난 가을에 이영도 같지 못하였는지 썩어서 푹푹속속한 지붕이었다. 그 썩어버린 지붕마저 받쳐 들기에 겨운지 성냥개비 같은 기둥이 비스듬히 뒤로 나자빠져 서글프기 그지없다. 그러나 그것도 집이라고 팔다리까지 꼬여진 아이 하나가 양지바른 담벽 옆에 쪼그리고 앉아 눈이 부신 듯 달리는 기차를 바라보고 있었다.(415)

기차에서 이치윤은 창밖에 산재해 있는 “쓰러져가는 농가”와 그곳에 사는 “팔다리가 비비 꼬여진 아이”를 목격한다. 그리고 차등적 분배의 골이

깊어져 서울의 명동과 시골이 ‘천국’과 ‘지옥’처럼 차이가 발생했음을 알게 된다. 이는 취약성이 최대화된 위태로운 삶들이 예증하는 사회·경제·정치 체도의 실패<sup>68)</sup>를 증명한다. 더불어 그런 취약성을 폐제하고, 추방하고, 주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의 비윤리성<sup>69)</sup>을 간파한다. 이렇게 『푸른 운하』의 서사는 혁명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 이유를 알려준다. 그렇기에 이치윤은 개인의 성공과 영달이라는 개인주의가 불가능할뿐더러 그것이 갖는 비윤리성을 깨닫고, 위태로운 삶들을 돌보고자 시골로 낙향한다. 실제로 자신이 입신양명의 포부를 갖고 공부와 일에 충실할 수 있었던 건 지금도 시골에서 아이를 키워주는 노모 덕분이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서울에서의 성공을 뒤로하고 또 은경과의 사랑을 포기하고 감행하는 시골행은 쉽지 않은 결단이지만, 이치윤은 결국 결단을 내린다. 그리고 귀향을 택한 이치윤의 행보는 상경한 청년들의 주체화를 다루는 대부분의 1960년대의 지식인 서사와 다르기에 의미 있다. 이제 허찬희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드디어 독재의 아성은 무너지고 민권은 국민에게로 돌아왔다.

혁명의 달 사월은 혼돈 속에 넘어가고 오월도 중순에 접어들었다. 이 무렵 장충동 양지바른 곳에 겨우 자리를 잡은 ‘고아원 빛’의 집에 전화가 따르르 울려왔다. 은경은 원아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가 수화기를 든다.(473)

(...)

“하여간 사일구 덕을 우리가 톡톡히 보는군요.”

찬희는 얼굴을 붉힌 일에 당황하며 덧붙였다.

“그리고 허 여사의 고아들도…….”

찬희는 별떡 자리에서 일어섰다.

68) 정혜옥, 위의 글, 25면.

69) 주디스 버틀러(2008), 앞의 글, 59면.

“윤 선생님? 제가 오늘은 저녁 사겠어요.”

“영광입니다.”

윤기성은 따라 일어섰다.

찬희는 미소하였다. 짜늘하고 매섭게 윤기성을 바라보던 지난날의 표정은 간곳없었고 따뜻한, 지극히 모성적인 개방의 빛이 떠올랐다. 그것은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윤기성의 마음에 흘러갔다.(479)(강조 필자)

혁명 이후 『푸른 운하』는 찬희가 새로 시작한 고아원 ‘빛의 집’을 주목한다. 허찬희가 정식으로 시작한 고아원 사업은 “사일구 덕을 우리가 톡 톡히 본다”고 말할 정도로 4월 혁명을 계기로 활기를 띤다. 특히 지난 정권 때 묶여있던 적성물자가 풀려나오며 고아원 운영 자금이 마련되고, 그것을 계기로 찬희는 정리했던 윤기성과의 관계를 쇠신하게 된다. 찬희가 후원만 하던 고아원의 경영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남편의 죽음<sup>70)</sup>과 사업의 실패였다. 그러나 이때의 찬희는 은경과 이치윤의 연애에도 서글픔을 느끼고 양로원을 떠올릴 정도로 극도의 외로움에 시달리던 상태였다. 그리고 고독에 떨면서도 윤기성과의 만남을 냉정하게 정리한다. 그러나 고독에 휩싸여 냉랭하던 찬희는 4.19를 계기로 고아원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관계의 차단에서 관계 맺기로 변화한다. 이때 찬희의 미소에 스민 “모성적인 개방의 빛”은 어머니의 품 같은 돌봄이 비단 고아원의 원아들뿐 아니라 4.19 이후의 새로운 세상에 필요한 가치임을 시사한다.

특히 허찬희가 고아원 사업의 주체가 되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후 구호물자가 구호사업으로 흘러들어가면서 구호물자를 둘러싸고 고아원, 교회, 구호물자업자, 민간구호단체 사이에 흥정이 벌어지고, 뇌물이 오가며, 수입의 수단과 개인의 잇속을 차리는 데에 악용되었을 뿐 아니라

---

70) 여성가족소설과 수행성의 차원에서 남편의 죽음을 계기로 허찬희의 변화를 짚어낸 논의로는 다음의 연구 참고 가능.(박구비, 「1960년대 여성가족소설에 나타난 행복의 수행성 연구-강신재, 박경리, 손장순 소설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22, 167-169면.)



이 와중에 누군가는 막대한 치부를 해왔던 게 당시의 풍속이었다.<sup>71)</sup> 그나마 전후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던 여성들의 입지가 여성의 사회진출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순식간에 좁혀지는 상황이었기에 사업의 주체는 대개 남성이었고, 여성들은 후원자에 그치기 마련이었다.<sup>72)</sup> 이러한 당시의 풍속을 감안한다면, 고아원을 후원만 하던 허찬희가 4.19를 계기로 고아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주체적으로 고아원을 운영해나간다는 서사는 당시 구호사업 및 사회사업의 주체로서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의지와 진정한 사회 돌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작가의식의 표출로 여겨진다.

이렇게 볼 때 서사 전반에서 허찬희는 김상국, 김 사장, H 의원 등의 기성세대의 남성인물과는 다른 주요 인물이다. 정략결혼을 피해 시골에서 상경한 은경을 딸처럼 거두고, 이치운이 맹장염에 걸렸을 때 그를 건사하며 보호자 역할을 하는 등 젊은이들이 의지하는 존재로서 그들을 돕는 돌봄의 중심에 위치한다. 한편 윤 변호사와 육체적 관계를 맺고, 첩과 자식까지 두고 있던 남편 김 의원에게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자기 돌봄도 수행하는 상호관계적 주체성을 가진 존재다. 그렇기에 4.19를 계기로 기성세대의 (남성)인물들은 모두 죽거나 몰락하는 데 반해, 기성세대 여성인 허찬희는 오히려 청년들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후원만 하던 고아원을 설립하고 적극적으로 취약한 아동들을 돌보는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은 그간 관계 맺었던 사람들과 특히 청년들의 도움으로 가능해진다. 또한 서사가 주로 허찬희의 집에

71) 고아들의 구호양식까지 횡령하던 묵은 정권을 규탄하고 혁명의 혜택이 전국의 5만 고아들에게까지 미칠 것을 소망하는 사회사업가의 칼럼(유상열, 「새 공화국에의 제언 고아를 돌아보라」, 『조선일보』, 1960.8.2.), ‘고아원 갑부’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외국원조단체에서 구호물자를 횡령해온 사회사업가들이 많았음을 고발하는(「고아와 복지」, 『조선일보』, 1960.12.11.) 등의 다수의 기사를 찾아볼 수 있으며, 당시 대미 의존적인 구호 경제의 실상과 구호물자의 배분을 둘러싼 부정부패의 풍속은 손장순의 장편소설 『한국인』에도 나타나 있다.

72) 대담, 「61년에 지표를 둔 庚子문화」, 『조선일보』, 1960.12.21.

서 전개되다가 4.19를 계기로 집을 팔아 고아원을 설립한다는 설정은 혈연과 이성애에 기반한 가부장적 가족주의를 탈피한 ‘난잡한 돌봄’<sup>73)</sup>에서 새로운 미래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편 송은경은 고아원 일을 돕는 대신 이치윤과의 사랑을 선택하고 그가 있는 시골로 떠난다. 은경은 원치 않는 결혼을 피해 상경한다는 점에서 가부장적 여성성에 침묵하는 대신 저항하고, 이치윤이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택한 사랑에 적극적이다. 심지어 이치윤은 4.19를 계기로 농촌 사업에 뜻을 품고 아이가 있는 시골로 내려가면서 은경과의 관계를 포기하지만, 송은경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푸른 운하를 파겠다고 할 정도로 너른 사랑을 다짐한다. 이때 고아원 사업을 돕는 대신 이치윤과의 사랑을 선택한 은경은 여성이 돌봄 수행자로서 당연히 여겨지는 것에서 벗어난다는 차원에서 이기적이라기보다 자기 돌봄을 수행하는 책임감과 주체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런 은경을 짝사랑하는 남식은 은경을 대신하여 찬희의 고아원 일을 돕기로 한다. 이때 은경의 부재를 남식이 채운다는 것은 그간 당연하게 여성에게만 부과되어온 돌봄 수행의 역할을 청년 남성이 맡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 지향적 서사의 흐름은 최종적으로 찬희와 남식이 서 있는 “상쾌한 소음이 울려 나오고 있”(489)는 ‘아침 거리’에서 끝난다. 김남식이 부정축재로 단죄된 아버지 김 사장의 부와 영향에서 벗어나 찬희의 고아원을 돕기로 했다는 결말은, 4.19로 인해 가능해진 희망찬 미래를 중년 여성 허찬희가 주도하고 청년 남성 김남식이 돕는 고아원에서 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아울러 찬희가 청년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도모하고 청

73) ‘난잡하다’는 것은 친밀감과 돌봄을 나누는 방법을 다양화하고 실험한다는 의미이자 ‘차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을 넘어 공동체, 시장, 국가, 인간뿐 아니라 비인간도 아우르는 초국가적 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규모의 사회 영역에서 실천되는 돌봄이며, ‘보편적 돌봄’과 연결된다. 그렇기에 ‘난잡한 돌봄’은 어머니나 여성뿐만 아니라 모두가 돌봄 역량을 가지고 있고, 서로 함께 돌봄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이 향상된다는 것을 인지한다.(더케이컬렉티브, 앞의 글, 82-86면.)

년 세대에 귀감이 되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여성주의 윤리를 청년 남성에게 전수하고 요청하는 서사로 읽힌다.

이치윤과 송은경의 농촌 사업, 허찬희와 김남식의 고아원 경영을 통한 사회 사업은 공히 위태로운 삶을 구제하고 함께 살 만한 삶을 모색하는 장치다. 이렇게 4.19를 계기로 인물들의 변화가 발생하며, 각자의 좌표에서 변화를 도모하여 모종의 집합적 주체를 이룬다는 차원에서 『푸른 운하』가 보여주는 상호관계적 맥락은 생명들의 상호의존성을 보여주며 서로 돌보는 공동체를 지향한다. 이처럼 가족의 경계를 넘어 보편적 돌봄의 가치를 구현한 사회를 꿈꾸는 『푸른 운하』의 비전은 5.16이 있기 전, 4.19 직후의 희망에 충만한 분위기로 말미암아 그려볼 수 있었던 가능성이었는지 모른다.<sup>74)</sup>

#### 4. 나가며: 보편적 가치로서 돌봄 윤리의 선취

현재는 어느 때보다도 돌봄 윤리의 필요성을 요청한다. 돌봄의 부재, 돌봄의 불평등 분배와 사회적 해결을 요청하는 목소리는 높지만 보편 윤리로서 돌봄의 실천은 아직 갈 길이 멀다. 1960년대 초, 전후 초토화된 국가를 재건하고, 4.19혁명으로 새 시대의 가능성을 모색하던 때, 기성세대 여성작가들은 새로운 세상을 위해 가장 긴요한 가치가 상호관계적 공동체이며 가족 관계를 넘어서는 돌봄 실천임을 역설함으로써 역사의 오르

74) 최인훈의 『광장』이 4.19를 계기로 역사의 조명탄이 환히 밝힌 세상을 보이는 대로 그려낸 작품이라면, 박경리의 『푸른 운하』도 그러하다. 다만, 남성작가가 분단과 전쟁, 그 이념 대립의 틈바구니에서 정주 불가능한 고독한 경계인을 부각시킴으로써 현실 비판에 집중했다면, 여성작가의 위치에서 박경리의 『푸른 운하』는 기존의 가부장적이며 위계 구조적인 관점과 절연하고 탈가족적이며 타자와의 상호의존적 관계와 사랑에 기반한 새로운 공동체를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다르며, 특히 현실 비판에 그치지 않고 바람직한 대안까지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으로 다른 가치가 찾아진다.

가논으로서 문학의 역할을 선취하였다.

4.19를 계기로 기술된 1960년대의 문학사는 비평사·문화사와 더불어 공히 ‘세대’와 ‘젠더’의 교체로 특징지어졌다. 그런데 4.19를 청년 세대와 만 결부시켰을 때, 기성 세대 여성의 시민적 역량은 간과되었다. 또 여성을 가정 안의 존재로만 여겼듯이 여성작가를 ‘여류’라는 멸칭으로 묶어 폄하할 때, 혁명과 관련된 여성작가의 성취와 대사회적 목소리는 지워졌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그간 4.19혁명의 서사에서 누락되었던 기성 여성들의 새로운 응전을 본고에서는 보편적 돌봄 윤리에 주목함으로써 탈가족적이고 상호관계적 공동체를 추구한 시도와 성과를 찾아낼 수 있었다.

본고는 청년 남성의 초상이 대표해온 1960년대 문학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정충량의 논설에서 확인하였듯이 실상 4월 혁명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세대와 젠더의 교차 지점에서 소외되었던 기성세대 여성 지식인(작가)의 위치에 주목하였다. 한무숙의 소설은 지식인 그룹에서 중견문인의 계몽적 발화인 동시에 여성작가의 복화술의 말하기로서 상호의존적 평등에 기반한 사회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박경리의 소설은 대중 독자들을 향해 세대와 젠더를 넘어서는 상호관계적 돌봄 공동체의 서사적 구현과 정치적 상상력을 보여주었다. 다소 계몽적인 세계관에서 비롯된 한계와 돌봄 윤리가 갖는 딜레마 해결의 과제를 안고 있었지만, 당시 여성작가의 작품에서 복화술은 저항인 동시에 보살핌을 실천하고 있었다.

청년 세대 남성작가들이 타자와 구별되는 개인주의적 주체성 수립의 과제를 놓고, 고독, 불안, 분열을 통한 현실 비판에 주력하였다면, 기성세대 여성작가들은 기존의 가부장적이며 위계 구조적인 관점과 절연하고 취약한 대상에 대한 윤리적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타자와의 상호의존적 관계와 사랑에 기반한 새로운 공동체를 모색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소설은 4.19의 영향에 놓여있으면서도 전후문학의 영향을 수용하고, 세대와 젠더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보편적 돌봄의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1960년대의 시작을 단절의 문학사에서 연결의 문학사로, 불안과

고독의 개인 주체에서 상호 돌봄을 모색하는 공동체의 이야기로 읽어봄으로써 1960년대 문학의 다른 가치를 복원하고 오늘의 문제의식과 공명하는 지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박경리, 『푸른 운하』, 마로니에북스, 2014.  
정충량, 「여성계의 사명과 임무-국가건설에 자율적인 참여를 하자」, 『이대학보』 99, 1961.  
한무숙, 「대열 속에서」, 『한무숙 작품집』, 김진희 엮음, 지만지, 2010, 27-73면.

2. 연구논저

- 강지윤, 「역사화된 삶과 젠더적 삶: 환상의 파열 지점으로서의 젠더-한무숙 소설을 읽는 하나의 관점」, 『여성문학연구』 49, 여성문학학회, 2020, 91-116면.  
강지희, 「4.19 혁명의 재현과 여성 시민권의 창출-박경리와 손장순의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68, 한국문학연구학회, 2019, 7-35면.  
강지희, 「1960년대 여성장편소설의 증여와 젠더 수행성 연구-강신재와 박경리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논문, 2019.  
권보드래·천정환, 『1960년을 묻다-박정희 시대의 문화정치와 지성』, 천년의상상, 2012.  
권보드래 외,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민음사, 2018.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2, 민음사, 2012.  
권혜린, 「한무숙 소설의 윤리성 연구」, 『겨레어문학』 52, 겨레어문학회, 2014, 5-32면.  
김건우, 『사상계와 1950년대 문학』, 소명출판, 2003.  
김건우, 「국학, 국문학, 국사학과 세계사적 보편성-1970년대 비평의 한 기원」, 『한국현대문학연구』 37, 한국현대문학회, 2012, 525-545면.  
김미현, 『여성문학을 넘어서』, 민음사, 2002.  
김미현, 『그림자의 빛』, 민음사, 2020  
김복순, 「전후 여성교양의 재배치와 젠더정치」, 『여성문학연구』 18, 여성문학학회, 2007, 7-60면.  
김승옥, 김현, 최하림, 『산문시대』, 1962.  
김양선, 『한국 근현대 여성문학 장의 형성』, 소명출판, 2012.  
김양선, 「박경리 초기 장편소설의 여성/문학사적 위치」, 『여성문학연구』 50,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177-195면.  
김양선, 「멜로드라마와 4.19 혁명의 서사적 결합」, 『현대소설연구』 77, 한국현대소설학회, 2020, 119-144면.  
김윤식, 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 김현, 『김현문학전집2-현대한국문학의 이론/사회와 윤리』, 문학과지성사, 1991.
-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24면.
- 박구비, 「1960년대 여성가족소설에 나타난 행복의 수행성 연구-강신재, 박경리, 손장순 소설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22.
- 연남경, 「현대비평의 수립, 혹은 통설의 탄생-1959년 백철과 강신재의 논쟁에 주목하며」, 『한국문화연구』 36, 한국문화연구원, 2019, 39-78면.
- 연남경, 「1950년대 여성 지식인 담론 연구-『이대학보』의 문학담론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24, 구보학회, 2020, 335-369면.
- 오제연 외, 『한국현대생활문화사-1960년대』, 창비, 2016.
- 우찬재·이광호 엮음, 『4.19와 모더니티』, 문학과지성사, 2010.
- 유중호, 『문학과 현실』, 민음사, 1975.
- 윤혜정, 「1960년대 박경리 장편소설의 여성가족로망스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2021.
- 이상경, 『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 소명출판, 2002.
- 정혜옥, 「집합적 주체와 몸들의 연대: 주디스 버틀러와 더불어 집합을 생각하기」, 『비평과이론』23(1), 한국비평이론학회, 2018, 1-30면.
- 최다정, 「4.19 여성 서사와 상처의 정동-1960년대 여성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86, 한국현대소설학회, 2022, 313-360면.
- 최다정, 「1960년대 여성문학의 정동 정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4.
- 캐롤 길리건, 『담대한 목소리』, 김문주 옮김, 생각정원, 2018.
- 캐롤 길리건, 『침묵에서 말하기로』, 이경미 옮김, 푸른숲, 2020.
- 에바 F. 키태이, 『돌봄: 사랑의 노동』, 김희강·나상원 옮김, 박영사, 2018.
- 더 케어 컬렉티브, 『돌봄선언: 상호의존의 정치학』, 정소영 옮김, 니케북스, 2021.
- 주디스 버틀러, 『불확실한 삶: 애도와 폭력의 권력들』, 양효실 옮김, 경성대학교출판부, 2008.
- 주디스 버틀러, 『비폭력의 힘: 윤리학-정치학 잇기』, 김정아 옮김, 문학동네, 2021.

### 3. 기타자료

- 대담, 「61년에 지표를 둔 경자문화」, 『조선일보』, 1960.12.21.
- 『사상계』 1958.1, 1961.11.
- 『아세아』 2월호(창간호), 1969.
- 유상열, 「새 공화국에의 제언 고아를 돌아보라」, 『조선일보』, 1960.8.2.
- 「고아와 복지」, 『조선일보』, 1960.12.11.

<Abstract>

## The 1960s Revisited as a Literary History of Connection and Care

—focused on Hahn Moo-suk and Park Kyung-ni

Yeon, Namkyung

The literary history of the 1960s, written in the wake of the April 19 Revolution, was characterized by the replacement of ‘generation’ and ‘gender’ along with the history of criticism and cultural history. This paper raises questions about the literary history of the 1960s, which has been represented by the portrait of a young male obsessed with the individual and his inner 'self-world'. In addition to the editorial by Jeong Chung-ryang, who proved the social care activities of the Mothers' Association through ‘Gyejassihoe’, the study focused on the position of female writers of the older generation who were marginalized at the intersection of generation and gender despite being influenced by the April Revolution.

In the early 1960s, when the post-war devastated country was being rebuilt and the possibility of a new era was being sought through the April 19 Revolution, male writers of the younger generation focused on criticizing reality through loneliness, anxiety, and division, with the task of establishing individualistic identity. However, Hahn Moo-suk's *In the ranks*(1961) is an enlightening speech by a mid-level writer in the intellectual group and at the same time a ventriloquist speech by a female writer, emphasizing the need for a society based on Interdependent equality. Park Kyung-ni's *Blue Canal*(1960-1961) showed the narrative



realization and political imagination of a post-familial and interrelational care community to the general public.

While their novels are influenced by the April 19, they also accept the influence of post-war literature and emphasize that everyone has a universal responsibility to care, regardless of generation or gender. In this way, by reading the beginning of the 1960s from a literary history of disconnection to a literary history of connection, from a subject of anxiety and loneliness to a story of a community seeking mutual care, it restores other values of the literature of the 1960s and provides a novel that resonates with today's critical awareness.

Key words: 1960s, the April 19 Revolution, generation, gender, care ethics, 'Gyejassihoe', *In the ranks*, *Blue Canal*

투 고 일: 2024년 8월 21일

심 사 일: 2024년 9월 11일

게재확정일: 2024년 9월 11일

수정마감일: 2024년 9월 25일